

우리말 소리의 이해

신지영
나사렛대학교

E-mail : jyshin@kornu.ac.kr

1. 서론

우리는 우리말 소리에 너무 익숙하다. 너무나 익숙해서 말을 할 때, 혹은 말을 들을 때 말소리에 그다지 커다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을 하면서, 혹은 말을 들으면서 말소리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말 소리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말에는 어떤 소리들이 있으며, 그 소리들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떠한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함께 만나게 되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등등 우리말 소리의 행동을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 우선 말소리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1.1 말소리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음운론이나 음성학 수업을 시작하면서 늘 학생들에게 말소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묻는다. 일단, 뭐가 말소리고 뭐가 말소리가 아닌지를 예를 들게 하거나 특정한 소리를 내면서 그 소리가 말소리인가, 말소리가 아닌가를 묻는다. 예를 들어 책상을 한 번 쿵 치고, 학생들에게 지금 방금 들었던 '쿵'하는 소리가 말소리인가, 말소리가 아닌가를 묻는다.

그러면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 소리가 말소리다, 혹은 말소리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한다. 그러면 나는 다시 학생들에게 왜 그 소리를 말소리라고, 혹은 말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즉 말소리다, 말소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다시 묻는다.

왜 강아지가 짖는 소리는 말소리가 아니라고 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성대를 떨면서 내는 'ㅏ' 소리는 말소리라고 하는 걸까? 그 판단기준은 무엇일까?

물론, 입을 크게 벌리고 성대를 떨면서 내는 'ㅏ' 소리와는 달리 강아지가 짖는 소리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리가 아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소리를 말소리다, 말소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그 소리가 사람이 사람의 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리인가 아닌가에 있다.

그럼 사람이 사람의 기관을 통하여 만들어진 소리는 다 말소리인가? 예를 들어 무릎을 치는 소리, 가슴을 치는 소리, 방귀뀌는 소리는 말소리인가? 물론 아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말소리를 판단하는 두 번째 기준은 그 소리가 사람의 기관 중에서 특히 발음기관¹⁾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리인가 아닌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럼 발음 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리는 모두 말소리인가? 예를 들어 이가는 소리나 재채기 소리는 어떤가? 이 소리들을 말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이 소리들은 의미를 갖지 않은 소리들이기 때문이다. 말소리 판단의 세 번째 기준은 결국 의미를 가진 소리인가에 있다.

1 발음 기관이란 말소리를 만들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우리 몸의 기관을 의미한다. 자세한 것은 &에서 논의될 것이다. 여기서는 대충 목, 입, 코 쪽에 있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아두자.

예를 들어 혀차는 소리를 생각해 보자. 혀차는 소리는 말소리인가? 혀차는 소리는 혀를 차는 강도와 속도에 따라서 '촉은하다, 불쌍하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 '경고한다, 조심해라, 맘에 들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이렇게 혀차는 소리는 의미를 가진 소리이다. 그럼 혀차는 소리는 말소리란 말인가?

답부터 말하면, 혀차는 소리는 우리말에서는 말소리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어떤 소리가 그 언어의 말소리가 되려면, 그 언어에서 혼자서 혹은 다른 소리들과 어울려서 적극적으로 단어를 만들어내는 언어적 의미를 가진 소리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입을 가장 적게 벌리고 성대를 떨면서 내는 내는 'ㅣ'라는 소리는 우리말에서 혼자서 '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내고, 입을 크게 벌리고 성대를 떨면서 내는 'ㅏ'라는 소리는 우리말에서 '비' '기' '저' 'ㅣ'라는 소리들과 어울리면 '아버지'라는 단어를, 'ㅣ'라는 소리와 어울리면 '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낸다. 결국, 'ㅣ'와 'ㅏ'는 우리말에서 언어적 의미를 가진 말소리인 것이다.

반면에 우리말에서 혀차는 소리는 단어를 만드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이 소리는 우리말에서 혼자서 혹은 다른 소리들과 어울려서 단어를 만드는 일이 없다. 결국 우리말에서 혀차는 소리는 언어외적 의미(즉, 앞서 얘기했듯이 '촉은하다, 불쌍하다' 혹은 '경고한다, 조심해라, 맘에 들지 않는다' 등등)는 있는 소리지만, 언어적 의미는 갖지 못한 소리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에서 혀차는 소리는 박수를 치는 것('격려한다, 칭찬한다' 등등)과 같이 언어외적 의미를 가질 뿐, 언어적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

하지만 혀차는 소리가 모든 언어에서 언어외적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언어에서는 혀차는 소리가 다른 소리들과 어울려 단어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우리말에서는 혀차는 소리가 말소리가 아니지만 아프리카의 여러 언어에서는 혀차는 소리가 말소리인 것이다. 이렇게 언어가 달라지면 말소리의 목록도 달라진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 보면,

- 1) 말소리란 사람이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언어적 의미를 가진 소리라고 정의될 수 있다.
- 2) 언어적 의미를 가진 소리란 그 소리가 혼자서 혹은 다른 소리들과 어울려서 단어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쓰이는 소리를 의미한다.
- 3) 따라서 말소리는 언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목록을 가진다.

1.2 두 얼굴을 가진 말소리

말소리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어느 쪽의 얼굴을

보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 대한 모순된 발언을 서슴없이 할 수 있다. 여기 지금 '배우리' 군과 '이마리' 양이 있다. 두 사람이 지금 소리를 맞춰서 책을 읽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소리를 낸 건가, 다른 소리를 낸 건가?

같은 소리를 낸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소리를 낸 거라고 말할 수도 있다. 같은 소리를 냈다고 한다면 뭐가 같다는 거고, 다른 소리를 냈다고 한다면 뭐가 다르다는 건가? 결국 같은 소리를 낸 거라고 말한 사람과, 다른 소리를 낸 거라고 말한 사람은 말소리의 두 얼굴 중 서로 다른 하나의 얼굴만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같다고 말한 사람은 말소리의 어떤 얼굴을 본 걸까? 그 사람은 아마도 배우리 군과 이마리 양의 말소리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 같은 소리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같은 소리를 냈다고 말했을 것이다. 반면에 다르다고 말한 사람은 머리 속에 같은 소리로 인식되기는 하였지만, 물리적으로 두 사람의 소리가 다르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다른 소리를 냈다고 말했을 것이다.

결국 말소리는 두 가지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는 물리적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인식되는 심리적 존재인 것이다. 물리적 존재로서의 소리를 우리는 음성(phone)이라고 부르고, 심리적 존재로서의 소리를 우리는 음소(phoneme), 혹은 음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물리적 존재로서의 소리가 달라도 우리에게 인식되는 심리적인 존재로서의 소리는 같을 수 있다.

말소리의 물리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학문을 음성학(phonetics)이라고 하고, 심리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학문을 음운론(phonology)이라고 한다.

2. 말소리의 생성과 발음 기관²⁾

대부분의 경우 말소리는 폐에서 생성된 기류가 성대(vocal folds)와 성도(vocal tract)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때 성대는 폐에서 올라온 기류를 조절하며, 성도는 그 모양을 여러 가지로 변형시켜서 성대를 통해 올라온 기류들을 특정한 음가를 가진 다양한 언어음으로 만들어 낸다. 여기서 성도란 후두 위의 공간을 의미한다.

2 이 장에서 쓰이는 각 기관의 명칭은 신지영(2000, 30쪽)에서 밝혔던 입장을 따른 것이다. 발음 기관과 관련된 해부학적 용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신지영(1999), 신지영, 시정곤(2000)을 참조할 것.

말소리의 생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의 세 과정을 자세히 살펴 보아야 하는데, 캣포드(Catford, 1988)은 말소리 생성의 이와 같은 세 과정을 **발동 (initiation), 발성(phonation), 조음(articulation)**이라 명명하고 이를 발화의 기능적 구성 요소(the functional components of speech)라고 하였다. 말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이해하려면 인간이 말소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관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말소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기관들을 먼저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1은 말소리를 만드는 데 관계되는 기관들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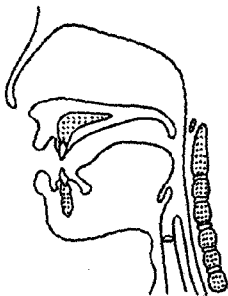


그림 1. 발음 기관과 그 명칭.

2.1. 혀

근육으로 이루어진 혀는 발음 기관 중에서 발화시 상대 다음으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기관일 것이다. 말소리의 생성을 이해하는 데는 혀의 각 부위별 명칭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2는 혀의 부위별 명칭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혀의 뾰족한 앞 끝을 혀끝(설첨, tongue tip)이라고 하고, 혀 표면의 가장 앞부분을 혀날(설단, tongue blade), 나머지 혀의 위 표면을 통틀어 혀몸(설배, tongue body)이라고 한다. 혀날 부분은 보통 입을 다문 자연스런 휴식 상태에서 치경(잇몸)부와 닿아 있는 부분을 지칭하는데, 캣포드(Catford, 1988, 81쪽) 같은 음성학자는 혀끝에서 약 10~15 mm 정도 되는 부분을 말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도 하였다. 혀몸은 다시 그 위치에 따라서 전설(front), 중설(central), 후설부(back)로 삼분되기도 하며, 전설과 후설로만 이분되기도 한다. 전설과 후설로 이분할 경우 전설부는 보통 경구개와 접촉하여 조음되는 부분을, 그리고 후설부는 연구개와 접촉하여 조음되는 부분을 지칭한다. 이 후설부 뒤로 혀의 깊숙한 부분을 혀뿌리(설근, tongue root)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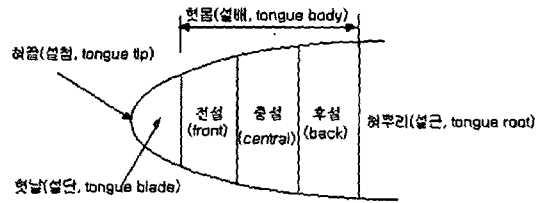


그림 2. 혀의 부위별 명칭.

2.2. 입천장(구개)

다음으로 입천장(구개 口蓋)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 보자. 그림3은 입천장의 구조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입천장의 구조를 확인할 때는 혀끝으로 해당 부위들을 더듬으면서 느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우선 혀끝으로 입천장의 앞부분을 더듬다 보면, 치아가 끝나는 곳 바로 뒤가 조금 불룩 튀어나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불룩한 곳을 치경(齒莖, 잇몸, alveolar ridge)이라고 한다. 그리고 치경 뒤로 오목하게 쪽 이어지는 입천장의 딱딱한 부위를 경구개(hard palate)라고 하며, 더 뒤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부분을 연구개(soft palate, velum)라고 한다. 경구개와 연구개의 경계를 조금 지나면 혀로는 더 이상 더듬을 수가 없게 된다. 혀로 더듬어 느낄 수는 없지만, 입을 크게 벌리면 혀 뒤로 보이는 구개수(uvula)는 연구개의 끝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다.

연구개는 입천장을림근(levator veli palatini)에 의해서 올리고 내려진다. 연구개의 움직임으로 폐에서 올라온 기류가 구강으로만 갈 것인가 비강으로도 갈 것인가 정해지게 되는데, 연구개를 올려 인두벽에 대어 비강 통로를 차단하면 혀파에서 올라온 기류가 비강으로 새는 것이 막혀서 구강음이 생성되고, 연구개를 내리면 비강으로 공기가 통하게 되어 비음이 생성된다. 발화에 쓰이는 소리는 구강음이 그 주류를 이루므로, 가끔씩 나타나는 비강음을 낼 때를 제외하고는 연구개가 들려서 인두벽에 닿아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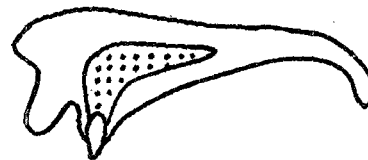


그림 3. 입천장의 부위별 명칭.

2.3 후두

그림 4는 위에서 본 후두의 모습을 보여준다. 후두는 아래로는 기관의 맨 위에 있는 반지연골(cricoid cartilage)부터 위로는 목뿔뼈(hyoid bone) 사이에 있는 기관을 지칭한다. 후두는 다섯 개의 주요 연골들이 골격을 이루는데, 반지연골, 한 쌍의 모뿔연골(arytenoid cartilage), 방패연골(thyroid cartilage), 그리고 후두 덮개(epiglottis)가 그것이다. 성대는 방패연골의 뒤쪽과 각각의 모뿔연골에 이어진 인대와 근육과 점막 등을 이르는 말이다. 성대는 모음과 발림 운동을 통하여 불었다, 떨어졌다 한다. 두 성대가 떨어지면 만들어지게 되는 두 성대 사이의 간격을 성문(聲門, glottis)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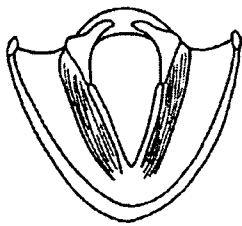


그림 4. 위에서 본 후두의 구조

3. 우리말의 소리체계

3.1. 우리말의 단모음 체계

우리말을 이루고 있는 단모음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 보기에 앞서 단모음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 보자. 단모음(monothong)이란 조음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조음 동작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중모음(두 조음 동작으로 만들어지는 모음)이나 삼중모음(세 조음 동작으로 만들어지는 모음)과 구별된다.

우리말이 몇 개의 단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국어학자들은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자에 따라서 많게는 10모음 체계에서 적게는 7모음 체계로 현대 국어의 모음 체계를 설정한다.

국어의 모음 체계가 10개의 단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i, e, y, ε, ø, a, u, ʌ, o/를 모음의 음소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y)/와 /니(ø)/를 단모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외국/과 /위기/의 발음이 각각 /økuk/과 /yki/로 발음된다고 본다. 현실적인 발음과는 유리된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많은 음운론자들이 국어의 모음 체계를 10모음 체계로 잡고 있다(허웅 1965, 김무림 1992, 이병근 외 1997 등).

9개의 단모음 체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기(y)/와 /니(ø)/ 중에서 /기(y)/는 단모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니(ø)/만을 단모음으로 인정한다(오정

란 1993). 이와는 달리 8개의 단모음 체계를 가졌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앞서 언급한 두 음소, 즉 /기(y)/와 /니(ø)/가 더 이상 국어에서 단모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배주채 1996). 7모음 체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y, ø/가 단음소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두 전설 모음 /기(e)/와 /니(ε)/가 더 이상 변별되지 않고 하나의 음소로 통합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필자는 표준어를 구사하는 젊은 계층의 국어 화자로서 7모음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필자에게 있어 단모음 /기/와 /니/는 통합되어 하나의 음소로 존재하며, /니, 기/는 /y, ø/와 같이 단모음이 아니라 /we, wi/와 같이 이중모음으로 존재한다. 실제로 음성 자료를 분석해 보면, 방언적인 차이는 있으나, 서울 방언 화자의 경우는 거의 성별이나 연령에 무관하게 /니, 기/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며, /기/와 /니/는 철자를 의식하여 부자연스러운 발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하나의 음소로 통합되어 음성적 차이가 없었다.

글말에는 존재하는 /기/와 /니/의 최소대립이 첫 음절에 위치한 경우에도 입말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글말을 혼란시키는 경우나, 의미적 대립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여타의 음소로 변화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국어에서 /기/와 /니/가 음소로서 존재한다면, 입말에서 최소대립쌍을 만들게 될 것이며, 서로 다른 소리에 대한 서로 다른 글자의 사용은 혼란을 야기시킬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와 /니/가 철자법에서 혼란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이 두 소리가 더 이상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적 대립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둘 중의 하나가 여타의 음소로 변화하는 경우의 예로 일인칭과 이인칭 대명사 /내/와 /네/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입말에서는 /ne/와 /ni/로 대응된다. 입말을 녹음하여 들어 보거나, 이것이 귀찮다면 유행가를 유심히 들어 보자. 유행가에서 늘 날 버리고 떠나거나 나에게 슬픔을 남겨주는 주체는 /내가/가 아니라 /니가/이다. 특히 신세대 가수가 부르는 노래에서는 ‘니가 날 떠나 버리지’, ‘네가 날 떠나 버리지’는 않는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글말에 전이되고 있다는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오고가는 ‘수다(chatting)’의 글을 잠시만 읽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젊은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연령을 초월하여 대부분의 우리말 화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7모음 체계는 현실 국어의 입말을 잘 반영한 체계라고 할 수 있겠다.

(1) 우리말의 단모음 체계(7모음 체계를 중심으로)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고모음	i	u	ɯ
중모음	ɛ	o	ʌ
저모음			a

3.2. 우리말의 이중모음 체계

이중모음(diphthong)이란 앞서 살펴 보았던 단모음과는 달리 두 개의 조음 동작으로 만들어지는 모음을 말한다. 이중모음은 활음과 단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활음(滑音 glide)이란 모음과 기본적으로 같은 원리로 생성되지만, 조음 동작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빨리 나타나는 소리를 말한다.

이중모음은 활음과 단모음이 결합된 형태로서, 두 조음 동작 중 그 동작의 변화 속도가 빠른 부분, 즉 활음 부분이 단모음에 선행하는가 후행하는가에 따라서 상향 이중모음(on-glide)과 하향 이중모음(off-glide)으로 나눌 수 있다. 상향 이중모음이란 활음 부분이 단모음 부분에 선행하는 이중모음을 말하며, 하향 이중모음이란 활음 부분이 단모음 부분에 후행하는 이중모음을 말한다. 상향, 하향 대신 상승형, 하강형이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말에 존재하는 활음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 활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이중모음은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2) 우리말의 이중모음 (10개)

	i	ɛ	a	ɯ	u	ʌ	o
j계	*	jɛ	ja	*	ju	jʌ	jo
w계	wi	wɛ	wa	*	*	wʌ	*
ɯ계	ɯi	*	*	*	*	*	*

우리말에 존재하는 활음은 세 종류로 /j/, /w/, /ɯ³/가 있다. 이 세 활음은 7개의 단모음들과 결합하여 10개의 이중모음을 만들어 낸다. (2)는 우리말 이중모음 체계를 정리해 본 것이다.

3 필자가 이 이중모음을 상향 이중모음으로 보고 있는 근거 등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신지영(1999)를 참조하기 바란다.

(2)에서 별표로 표시된 부분은 우리말 이중모음 체계의 빈칸을 의미하며, 달리 말해서 활음과 단모음의 결합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세 활음은 모든 단모음들과 다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만들어 내지는 것은 아니다. 활음과 단모음의 결합에는 나름대로의 결합 제약이 존재한다. 그럼 여기서 활음과 단모음 사이의 결합 제약을 살펴 보기로 하자.

우리말 이중모음 체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활음이 단모음에 선행하는 상향 이중모음만 존재할 뿐, 활음이 단모음에 후행하는 하향 이중모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상향 이중모음의 생성에도 다음과 같은 단모음과 활음 사이의 결합 제약이 존재한다.

(3) 우리말 활음과 단모음의 결합 제약

- ① 활음은 단모음에 선행한다.
- ② 어떠한 활음도 단모음 /ɯ/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 ③ 활음 /j/는 [+전설성, +고설성]을 가진 단모음과는 결합하지 못한다.
- ④ 활음 /w/는 [+원순성]을 가진 단모음과는 결합하지 못한다.
- ⑤ 활음 /ɯ/는 /i/ 이외의 단모음과는 결합하지 못한다.

3.3. 우리말의 자음 체계

우리말의 단모음 체계와 이중모음 체계, 즉 우리말의 모음 체계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말의 자음 체계를 살펴 보기로 하자. 모음 체계와는 달리 자음 체계에 대해서는 학자 사이의 견해차가 별로 없다.

(4)

	양순음	치경음	치경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폐쇄음 (파열음)	ㅂp ㅃp ^h ㅍp*	ㄷt ㄸt ^h ㅌt*		ㄱk ㅋk ^h ㆁk*	
마찰음		ㅅs ㅆs*			ㅎh
파찰음			ㅈtɕ ㅊtɕ ^h ㅉtɕ*		
비음	ㅁm	ㄴn		ㅇŋ	
설측음		ㄹl			

(4)는 우리말에 존재하는 19개의 자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의하여 분류한 후 이를 표로 만들어 본

것이다. (4)에서 보듯이 우리말의 자음은 조음 위치별로는 양순음, 치경음, 치경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의 다섯 가지 조음위치에서 만들어지며, 조음 방법별로는 폐쇄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설측음의 다섯 가지 조음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같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의미하는 표의 한 칸 안에 경우에 따라서 두 개 혹은 세 개의 자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말은 하나의 조음 위치에 조음 방법을 공유한 세 가지 발성 유형을 가진 폐쇄음과 파찰음이 있으며, 두 개의 발성 유형을 가진 마찰음이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들이 모두 무성음이라는 것이다. 결국 성대 진동의 여부로 소리들이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논의했듯이 기식성과 긴장성에 의해 무기 연음(평음), 무기 경음(경음), 유기 경음(적음)의 세 가지 무리로 나뉘게 된다.

4. 우리말의 음향적 특성

ㄱ) /ta/ ㄴ) /ata/ ㄷ) /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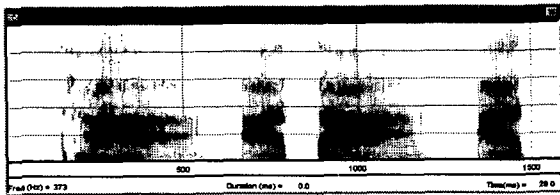


그림 5. 우리말 치경 폐쇄음의 세 가지 음성적 실현형과 그 음향적 특성. ㄱ)은 어두 초성에 위치한 경우를, ㄴ) 어중 초성(모음과 모음 사이)에 위치한 경우를, ㄷ)은 어말 초성에 위치한 경우를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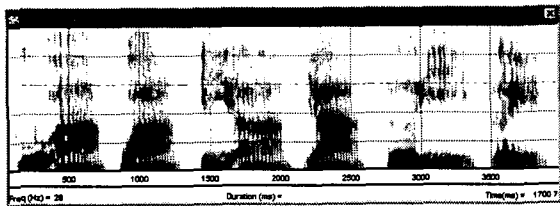


그림 6. /ua/와 /wa/, /ia/와 /ja/, 그리고 /ui/와 /uj/의 광역 스펙트로그램.

ㄱ) /ta, t^ha, t^ha/ ㄴ) /ata, at^ha, at^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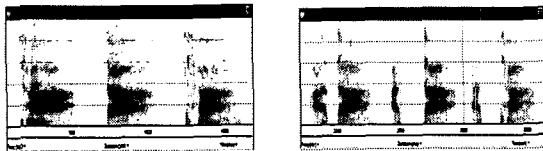


그림 7. 발성 유형에 따른 우리말 치경 폐쇄음의 음향적 차이. ㄱ)은 어두 초성에 위치한 경우를 ㄴ)은 어중 초성에 위치한 경우를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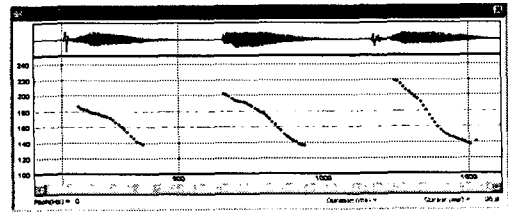


그림 8. 발성 유형에 따른 후행 모음의 음높이 차이. 평음이 선행하는 경우가 기음이나 경음이 선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음높이가 훨씬 낮게 나타난다.

ㄱ) /ala/ ㄴ) /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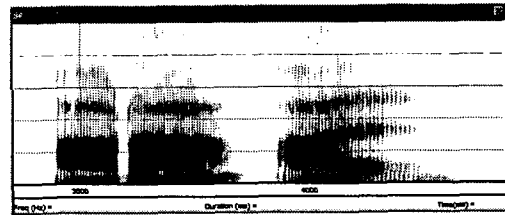


그림 9. 우리말 /r/의 두 가지 음성적 실현형과 그 음향적 특성. ㄱ)은 어중 초성에서 실현된 탄설음을, ㄴ)은 종성에서 실현된 설측음을 각각 보인 것이다.

5. 우리말의 운율

5.1 발화에서 운율의 기능

다음 (5)에 보인 문장의 뜻을 알아보자.

(5) /학교에 가요/

(5)에 보인 문장은 마지막 음절의 음높이 패턴(pitch pattern)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확한 뜻을 전혀 알 수 없다. 우선 발화의 마지막 음절을 내려보자. 발화의 마지막 음절을 내리면 ‘학교에 간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평서문이 된다. 그럼 이번에는 발화의 마지막 음절을 급격하게 올려보자. 발화의 마지막 음절을 올리면 ‘학교에 가는가 가지 않는가’를 묻는 가부의문문(yes/no question)이 된다.

그 외에도 (5)에 보인 문장은 발화의 마지막 음절을 내렸다 올리는가, 내렸다 올렸다 다시 내리는가, 혹은 올렸다 내리는가 등등에 따라서 문장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 화용적 의미가 달라진다. 물론 같이 마지막 음절을 내려도 길게 늘이면서 많이 내리는가, 아니면 조금 내리면서 짧게 바로 끝내는가 등등에 따라서도 발화가 주는 의미가 아주 달라진다.

이렇게 같은 분절음의 연쇄를 가진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음높이 패턴을 가지고 발화되면, 문장의 문법적, 화용적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결국 발화에서 음높이는 문장의 문법적, 화용적 의미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럼 이번에는 끊어읽기의 기능을 알아보자. 같은 소리의 연쇄(분절음의 연쇄)를 가진 문장이 끊어읽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발화가 되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6)에 보인 문장을 읽어보자. (6)에서 ‘|’은 끊어읽기 단위를 표시한 것이다. 어절과 어절 사이에 ‘|’이 표시되어 있으면 어절 사이를 끊어서 읽고, 공백만 존재하면 어절 사이를 붙여서 읽도록 하자.

- (6) ㄱ.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 ㄴ. 아버지께 방에 들어가신다.
- ㄷ.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6)에 보인 세 발화는 모두 같은 분절음의 연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 발화는 끊어읽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 가지 의미를 화자에게 전달한다. 우선 6-ㄱ)은 ‘아버지께서 가방 (속)에 들어가신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6-ㄴ)은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신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끝으로 6-ㄷ)은 ‘(누군가가) 아버지 소유의 가방에 들어가신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결국, 끊어읽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분절음의 연쇄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발화로 해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2 우리말의 운율 단위

아래에 보인 (7)의 문장을 보통 속도로 읽어보자.

(7) 마리는 밥을 먹었고, 우리는 물을 마셨다.

(7)에 보인 문장은 여섯 개의 띄어쓰기 어절을 가진 문장이다. 여섯 개의 띄어쓰기 어절을 모두 붙여서 읽어보자. 여섯 개의 어절을 모두 붙여서 읽으면 읽기도 아주 어렵거니와 듣기에도 아주 부자연스럽다. 보통 속도로 자연스럽게 이 문장을 읽으려면, 어절과 어절 사이를 적당히 끊어서 읽어야 한다. 그리고 어절과 어절 사이를 끊어서 읽더라도 끊어읽는 정도가 모두 똑같지는 않다. 앞의 문장에서 ‘먹었고’와 ‘우리는’ 사이와, ‘우리는’과 ‘물을’ 사이는 끊어읽는 정도가 같지 않다.

그럼 이제 이 문장에 보인 여섯 개의 띄어쓰기 어절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 보자. 분명히 어떤 어절과 어떤 어절 사이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아주 가까운 것 같고, 어떤 어절과 어떤 어절 사이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아주 먼 것 같다. 앞의 문장에서 어절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곳, 즉 가장 큰 쉼이 들어가는 곳은 어느 어절

과 어느 어절 사이라고 생각되는가? 물론, ‘먹었고’라는 어절과 ‘우리는’이라는 어절 사이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속도의 발화에서 (7)에 보인 문장은 대강 다음 (8)에 보인 것과 같이 끊어읽으면 자연스럽게 들린다.

(8) 마리는 밥을 먹었고,| 우리는 물을 마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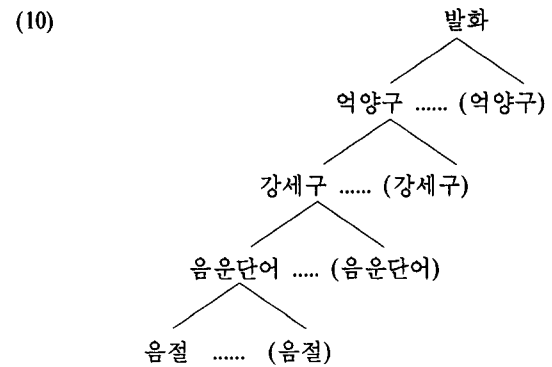
위 문장에 표시된 ‘|’과 ‘||’은 끊어읽는 정도를 표시한 것이다. 막대 하나로 표시된 것은 막대 두 개로 표시된 것에 비하여 끊김의 정도가 작은 것을 의미한다. 어절 사이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은 한 단위로 이어서 읽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모든 소리를 다 똑같이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끊어읽지 말아야 할 곳에서 끊어읽거나, 끊어읽어야 할 곳에서 끊어읽지 않으면 아주 부자연스럽게 들린다. 또한, 끊어서 읽는다고 해도 끊김의 정도를 부적절하게 하여 너무 크거나 작게 하면 아주 부자연스럽게 들린다.

(4)에 보인 문장을 이번에는 (9)와 같이 끊어읽어보자.

(9) 마리는 밥을 먹었고| 우리는| 물을 마셨다.

분명히 모든 소리는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몹시 어색한 발화가 된다. 이렇게 분절음을 다 갖추고 있어도 적절한 운율 단위로 발화를 구성하지 않으면 매우 부자연스러운 발화가 된다.



이처럼 낱말의 말소리(음소)는 그냥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크고 작은 단위들을 구성한다. 말소리의 이러한 단위들을 음운론적 단위(phonological unit), 혹은 운율 단위(prosodic unit)라고 한다.

음소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음운론적 단위, 즉 운율 단위 중에서 가장 하위의 단위는 음절(syllable)이고 가장 상위의 단위는 발화(utterance)이다. 발화는 이보다

하위의 단위인 하나 이상의 억양구(intonational phrase)로 구성되어 있다. 억양구는 다시 하나 이상의 강세구(accentual phrase)로, 강세구는 다시 하나 이상의 음운단어(음운론적 단어, phonological phrase)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말에 존재하는 운율 단위의 위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에 보인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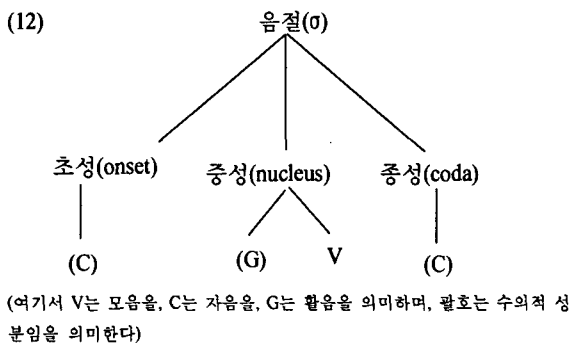
6. 음절

앞에서도 논의했듯이 음절이란 음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가장 하위의 운율 단위이다. 하지만 모든 음절이 같은 개수의 음소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이라는 단어를⁴⁾ 생각해 보자. ‘어머니’는 세 음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 음절이 모두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소리의 수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 음절은 하나의 분절음 /a/로만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음절은 두 개의 소리 /m/와 /n/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번째의 음절은 세 개의 소리 /n/, /i/, /m/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말에서 가능한 음절 유형은 (8)에 보인 바와 같이 크게 여덟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1) 1유형 :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 : V 예) /i/
 - 2유형 : 활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 : GV 예) /jo/
 - 3유형 :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 : CV 예) /kʰo/
 - 4유형 : 자음, 활음, 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 : CGV 예) /kja/
 - 5유형 :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 : VC 예) /ok/
 - 6유형 : 활음과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 : GVC 예) /jok/
 - 7유형 :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 : CVC 예) /nok/
 - 8유형 : 자음, 활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 : CGVC 예) /pjak/
- (여기서 V는 모음을, C는 자음을, G는 활음을 의미한다)



(11)에서 보듯이 우리말에서 가장 복잡한 음절 구조를 갖는 것은 제8유형으로 구조에 보인 모든 수의적 성분이 다 갖추

4 ‘어머님’은 형태론적 단어와 음운론적 단어가 일치하는 예이다. 하지만 음운론적 단어가 형태론적 단어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에서 말하는 단어는, 물론 음운론적 단어를 의미한다. 하지만 음운론적 단어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여러분에게 더 익숙한 ‘단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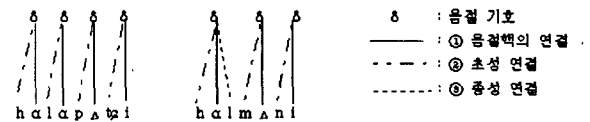
어진 자음-활음-모음-자음(CGVC) 유형이다. 따라서 우리 말에서 음절핵과 음절핵 사이에 올 수 있는 최대의 자음 수는 (13)에서 보듯이 둘이 된다.

(13) CGVC - CGVC

그럼 이제 우리말은 어떠한 방법으로 분절음의 연쇄를 음절의 연쇄로 만들어 가는가를 알아 보자. 그에 앞서 우리는 우선 우리의 철자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표기체계인 한글이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덕분에 음절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철자법으로 모아쓰는 단위와 하나로 묶이게 되는 음절이 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표기법의 특성상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도 표기상의 초성에 실제로는 아무런 음가가 없는, 하지만 종성으로 쓰이면 음가가 있는 자소 ‘ㅇ’을 쓰고 있다는 데 있다. ‘일어나다’의 예를 생각해 보자. 이 말이 네 음절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주 쉽게 알 수 있지만, 표기에 얽매어 생각하면, /o/이 첫 음절의 초성이며, /r/가 첫 음절의 종성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 첫 음절은 초성이 비어 있으며, /r/는 첫 음절의 종성이 아니라 둘째 음절의 초성이다. 그럼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일어나다’의 /r/는 첫 음절의 종성이 아니라 둘째 음절의 초성이 되는가?

음절구조를 만들어 가는 원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초성 우선 원리이다. 음절핵을 기준으로 초성에 그 언어가 허용하는 한 최대의 주변음을 확보한 후, 다음 단계에서는 앞 음절부터 뒤에 연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주변음들을 취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음절구조를 이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 보면, 아래 보인 (14)와 같다.

(14)



(14)에 보인 바와 같이 음절을 구성하는 데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 우선 음절핵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그 수만큼 음절의 뼈대를 구성한다. 그리고 초성 우선 원칙에 의하여 음절핵 앞에 놓일 수 있는 요소를 그 언어에서 허용하는 한 최대한 확보하여 앞 음절부터 음절핵과 연결시킨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은 주변음이 있다면, 다음 과정, 즉 종성 연결과정을 통하

여 또 앞 음절부터 음절핵과 연결시킨다.

국어 음절구조에서 또 한가지 특기할 것은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이 모두 7 개(/ㄱ, ㄴ, ㄷ, ㄹ, ㅁ, ㅂ, ㅇ/)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 이외의 자음들이 오게 되면, 이 중의 하나로 변화하게 된다. 우리말에는 종성에 위치한 소리들이 꼭 지켜야 할 명령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종성에 위치하는 경우 구강의 전부, 혹은 일부를 완전 폐쇄한 채로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찰음, 파찰음은 폐쇄음으로 변화하고, 개방의 국면이 결여되기 때문에 개방의 국면에서 음성적 차이를 보이는 세 가지 발성 유형의 장애음들은 모두 불파음으로 중화된다. 초성에 /ŋ/이 허용되지 않는 것 또한 우리말 음절 구조의 특징이다.

**본 원고는 신지영(2000), 신지영·차재은(준비중)의 일부를 요약한 것입니다.

신지영(2000) 말소리의 이해: 음성학·음운론 연구의 기초를 위하여, 한국문화사.

신지영·차재은(준비중) 우리말 소리의 체계, 한국문화사.